



## 목포 10.5km 해안 밤풍경 해상케이블카서 즐기세요

대반동 해안과 동명동 물양장을 거쳐 삼학도에 이르는 총 연장 10.5km의 해안에 설치된 경관조명이 오는 5월이면 하나로 연결된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오는 9월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관련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앞서 깨끗한 목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달산 서면 주변의 노후 건축물에 대한 경관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름다운 '밤바다' 연출=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밤바다를 선사하기 위해 대반동 해안도로와 고하도 해안에 3개 경관조명 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총 19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앞서 시는 사업비 4억원을 들여 대반동 해안도로인 수담~옛 조선내화 구간 1.4km에 가로등주 51본과 연출 조명 176개를 설치하고 이달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 9월 개통 앞두고 야간 경관조명 등 연계 사업 순조 유달산 서면 인근 주택 지붕 도색하고 탐방로 개설도

고하도 해변을 따라 총 1.1km 구간에서 사업비 6억9000만원을 들여 조형물 3개소를 비롯해 안전조명 280개와 연출 조명 236개를 설치하는 사업도 고하도 힐링랜드 조성공사와 연계해 진행 중이다.

또 고하도 용오름길 능선 3km에 안전조명 140개와 연출조명 70개가 설치되는 고하도 경관조명 개선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돼 오는 5월 초 완공될 예정이다.

이들 3개 경관조명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5월이면 목포 내항의 대표적 해안선인 고하도에서부터 목포대교를 지나 대반동 해안과 동명동 물양장을 거쳐 삼학도

에 이르는 총 10.5km 구간의 해안에 경관조명이 설치돼 해상케이블카를 타고 바라보는 목포 해안선이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의 옷' 입는 지붕=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 유달산 서면 주변 등 주변환경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대반·소반·용전마을, 죽교동, 옛 시민극장 주변 등 147가구다. 시는 사업비 4억여원을 들여 지붕 45동을 도색하고 폐가 11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사업비 1억4000

만원을 투입해 대반마을 지붕도색 14동과 지붕교체 8동 등 22동에 대한 경관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시는 이달 설계용역을 발주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 시행에 들어가 오는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유달산 상부에 다도해의 절경을 한눈에 조망하는 탐방로가 개설된다.

탐방로는 유달산 상부 승강장에서 마당바위를 거쳐 일등바위에 이르는 구간으로 무분별한 숲길 훼손을 방지하고 입산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다.

시는 이 구간에서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데크 탐방로 500m(상부승강장~마당바위 300m, 마당바위~일등바위 200m)를 개설하고 전망대 2곳, 쉼터 4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제1회 수군 문화제 당시 노적봉에서 열린 강강술래 모습.

### 이순신 수군문화축제 4월 7~8일 개최

목포항구축제는 20일 앞당겨 10월 5~7일

#### 목포시, 시기·프로그램 확정

목포의 대표적 축제인 '이순신 수군 문화축제'와 '항구축제'의 개최시기와 세부 프로그램이 확정됐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수군문화축제는 오는 4월 7일부터 8일까지 노적봉과 원도심 일원에서 열리며, 목포항구축제는 지난해보다 20여일 앞당긴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수군문화축제는 노적봉의 의미를 살려 노적봉기와 호국 강강술래 등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 개선장군 수군 퍼레이드와 1597

노적봉을 재건하라, 수군교대식, 강강술래, 목포 수군 해상 퍼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이순신 106길 역사탐방 스탬프ラリー, 수군 신호 연날리기 체험 및 전시회, 궁중한복 체험, 판옥선 모형 만들기 체험 등을 비롯해 해군 3함대 홍보 체험관도 운영된다.

가을에 치러질 항구축제는 선상에서 펼쳐지는 어시장이인 파시를 축제 메인 테마로 삼학수로 낚시체험과 전통 배 노젓기, 카누, 카약 경연대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목포항구축제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평가받아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축제평가에서 유망축제로 선정됐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목포의료원~옛 국도1호선 잇는 도로 완공



목포 의료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목포의료원과 옛 국도 1호선을 잇는 도로 건설이 지난 2009년 사업계획 이후 9년 만에 완공돼 개통됐다. <사진>

이번 도로 개설로 목포의료원과 의료시장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의료시장 인근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사업비 13억 4000만원(보상비 포함)을 투입해 목포의료원과 옛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연장 60m, 폭 15m)를 지난

해 10월 착공해 올해 2월말 완료했다.

이로시장 인근은 상가와 목포의료원을 비롯해 이초등학교와 신안인스빌아파트, 목포과학대 생활관 등이 밀집돼 차량 통행량이 많지만 도로가 협소해 고질적인 상습 교통체증 구간이었다.

목포시 건설과 관계자는 "도로가 개설돼 의료시장 활성화는 물론 교통환경 개선과 생활환경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찾아가는 건강경로당 호응 목포보건소 31일까지 운영

목포시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 경로당'(사진)을 운영해 지역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목포시 보건소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청호경로당 등 42개 경로당 67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보건소는 이를 위해 간호사 11명과 사회복지사 등 4개 전담팀을 꾸려 혈압·혈당·콜레스테롤·치매·기초체력 등 기초건강 검진은 물론 노년기 구강건강을 위한 구강위생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또 손소독제 만들기 등 어르신 참여 주



도형 프로그램을 비롯해 노인 허약제질 예방을 위한 체조 배우기,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노년기 각종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치료를 유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방문건강 관리서비스와 연계,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목포해수청 해양오염사고 대응 80t급 청항선 추가 건조 착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평진)은 목포항과 인근해역의 해양환경 보호 및 유류오염사고 대응을 위해 이달 80t급 청항선 건조에 착수한다.

목포항에는 현재 64t 청항선 1척이 운항하고 있으며 올해 80t급 청항선 건조가 완료되면 2019년부터 총 2척의 청항선이 운항하게 된다.

이번 청항선 건조에는 사업비 약 30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말 건조돼 내년부터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통해 운항될 예정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oticon PEOPLE FIRST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